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5 ZENO THE MAINTAINER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Zeno the Maintainer」 (원서 PDF 46~48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4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가."

첫 제논은 새 영토를 개척했고, 크리시포스는 주먹을 날리며 학파를 지켰다. 백 년 뒤 학파를 물려받은 둘째 제논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적게 쓰고, 큰 강연을 열지 않고, 사소한 이견만 남긴 채 떠 있는 배를 안정시켜 다음 세대에 넘겼을 뿐이다. 역사는 그를 기껏해야 '전환기 인물'로 기억하지만, 저자는 용기가 언제나 돌진은 아니며 때로는 인내이고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 노트는 두 쪽 남짓한 짧은 장을 열여섯 문항으로 자른다. 짧을수록 출제자는 한 단어를 뒤집어 묻는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4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때에 맞는 덕과 용기의 세 모습(48쪽 ¶1) / 관리자가 필요한 때(47쪽 ¶7 ~ 48쪽 첫 줄) / 떠 있는 배를 안정시키는 일(48쪽 ¶3) / 잊혀도 제 몫을 다함(48쪽 ¶7)
4~5	**밑줄 함축 의미**	interchangeable pieces / take up the mantle / too on the nose / another Aristo / rushing into the fray / it found him home / the limelight / a boat that floated / the cradle of democracy / a transitional figure
6	지칭 추론	he·him이 Chrysippus·Dioscurides·Zeno of Tarsus 사이를 오가는 47쪽 ¶5~¶6 / 47쪽 인용의 the Zeno who was the disciple(첫 제논이 아님) / 48쪽 ¶2 it found him home의 it·him / 48쪽 ¶3 It was a boat의 It
7~8	내용 일치·불일치	연도(기원전 2세기 초 · 100년 · 사망 190~180 BC?) / 출신(타르소스) / 디오스쿠리데스(여섯 저작 · 21권 · 아버지) / 에우세비오스(기독교 저술가) / 의심한 교리(대화재) / 저서(Against Hieronymus of Rhodes) / 후계자(바빌론의 디오게네스) / 그리스 쇠퇴 · 로마 부상
9~10	**어법**	Very little makes this clearer than · 동격 that · the choice of who ~ was his to make · about whom little is known · must have p.p. · is said to have p.p. · just agreeable enough to V · not always(부분 부정) · a matter of -ing · whatever it is · seem to have p.p. · What ~ needed to do was V · could not have been more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cyclical↔linear · interchangeable↔unique · presumptive↔unlikely · doubted↔accepted · ardent↔lukewarm · agreeable↔quarrelsome · humbler↔grander · minor↔major · boring↔flashy · decline↔rise · forgotten↔celebrated
12	빈칸 추론	cyclical / interchangeable pieces / a maintainer, an administrator / a calming presence / something humbler / matching 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 / minor cavils / stabilize and carry on / did his job when it needed to be done
13	문장 삽입	후계 선택 장면(47쪽 ¶5~¶6): 크리시포스의 선택권 → 타르소스 동향인 → 디오스쿠리데스 →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 → 아들 / 시대 전환 장면(48쪽 ¶3~¶6): 떠 있는 배 → 시점 → 그리스 쇠퇴 · 로마 부상 → 디오게네스 → 황금기
14	무관한 문장	용기의 세 모습 단락(48쪽 ¶1)에 다른 장의 소재 끼워 넣기 / 떠 있는 배 단락(48쪽 ¶3)
15	순서 배열	백 년 된 학파 → 순환하는 역사 → 또 한 명의 제논(47쪽 ¶1~¶4) / 디오스쿠리데스 → 아들 → 에우세비오스의 증언(47쪽 ¶5인용) / 그리스 쇠퇴 → 디오게네스 → 황금기(48쪽 ¶5~¶6)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혁명가도 수호자도 아닌 관리자(47쪽 ¶7) / 자아 없이 적게 쓴 사람(48쪽 ¶2) / 잊힌 전환기 인물과 제 몫(48쪽 ¶7)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한 문항만 틀려도 통째로 날아간다. 이 장은 짧아서 외울 고유명사가 적다 — 그래서 더 꼼꼼히 묻는다.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doubted ↔ accepted, Tarsus ↔ Babylon, Cleanthes ↔ Chrysippus, decline ↔ rise). 교리 이름 · 지명 · 동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Zeno the Maintainer」 (47~48쪽)

전환형(물음 → 원리 → 인물 → 증언 → 판정 → 교훈 → 성격 → 비교 → 시대 → 결말). 핵심 축은 **싸우는 사람(fighter) vs 지키는 사람(maintainer)**, 그리고 **별(star) vs 더 소박한 것(something humbler)**.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47 ¶1~¶2	도입	기원전 2세기 초, 백 년이 된 스토아 / 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 / 도발 · 회의론자 · 다른 학파의 공격을 견딤 / "이제 어떻게 되나, 다음은 누구인가"
47 ¶3	원리	스토아의 핵심 신념 = 역사는 순환한다 / 같은 일이 거듭 되풀이됨 /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 태초부터 상연된 연극의 교체 가능한 배역
47 ¶4	인물 소개	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사실 — 새 세기를 여는 다음 지도자도 이름이 제논 →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셈
47 ¶5	후계	크리시포스의 선택권 / 타르소스 동향 제자들 / 유력 후계자 디오스쿠리데스(여섯 저작 21권 헌정) — 너무 늙었거나 병약했거나 죽음
47 ¶6 + 인용	증언	그의 아들 = 타르소스의 제논 / 에우세비오스: 우주가 불로 돌아갔다 되살아난다는 교리(대화재)를 의심 — 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는 받아들인 교리
47 ¶7 ~ 48 첫 줄	판정	그래도 또 한 명의 아리스토는 아님 / 혁명가 · 교란자 · 열렬한 수호자 모두 아닌 관리자 · 행정가 / 역사는 때로 싸움꾼을, 때로 차분한 존재를 부른다 / 별 vs 더 소박한 것
48 ¶1	교훈	용기 = 돌진만이 아니라 인내 · 내면 성찰 /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는 일 / 무엇이든 의무를 다하라
48 ¶2	성격	사소한 이견(클레안테스 편도, 크리시포스 편도) / 자아 없음 / 갈등을 즐기지 않되 피하지도 않음(『히에로니모스 반박』) / 각광 · 수백 권 · 대강연 불필요 / 지루할 만큼 조용히 다음 세대에 전달
48 ¶3~¶4	비교	첫 제논 = 새 영토 개척, 크리시포스 = 주먹 / 둘째 제논은 그럴 필요 없음 — 떠 있는 배, 수천 명의 실천가 / 할 일 = 안정시키고 이어 가기 / 시점이 더없이 중요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48 ¶5~¶6	시대	그리스 쇠퇴 · 로마 부상 / 민주주의의 요람을 떠나 성장하는 강국의 필요에 응함 / 사망 시점 미상 / 후계자 바빌론의 디오게네스 / 공화정과 철학이 만나는 황금기 → 제국
48 ¶7	결말	대부분 잊힘 — 기껏해야 전환기 인물 / 스토아라면 신경 쓸 수 없는 일 /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역사의 흐름	매번 새로운 일(우리는 특별하다)	순환(cyclical) — 되풀이되는 같은 일 · 교체 가능한 배역
둘째 제논의 의심	또 한 명의 아리스토(혁명가 · 교란자)	사소한 이견(minor cavils) — 자아 없음
지도자의 유형	싸움꾼(fighter) · 별(star)	관리자(maintainer) · 더 소박한 것(something humbler)
용기의 모습	싸움터로 돌진(rushing into the fray)	인내(endurance) · 내면 성찰(looking inward)
덕의 적용	한 가지 덕을 언제나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
갈등을 대하는 태도	갈등을 즐김(thrive on conflict)	즐기지 않되 피하지도 않음 — 문을 두드리면 집에 있음(『히에로니모스 반박』)
명성	각광(limelight) · 수백 권 · 대강연	지루할 만큼 조용히, 적게 씀 — 파문을 가라앉히고 다음 세대에 전달
학파의 상태와 과제	새 영토 개척 · 주먹(첫 제논 · 크리시포스)	떠 있는 배 — 안정시키고 이어 가기(stabilize and carry on)
시대	그리스(민주주의의 요람) — 쇠퇴	로마(성장하는 강국) — 부상 · 황금기
후계	디오스쿠리데스 — 유력 후계자였으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	그의 아들 타르소스의 제논
평가	잊힘 · 기껏해야 전환기 인물	스토아가 신경 쓸 수 없는 일 —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Zeno of Tarsus	B. **Unknown**(출생 미상) · 출신 **Tarsus** · D. 190–180 BC?(사망 연도도 불확실) · 발음 ZEE-No · 저자가 붙인 이름 = the Maintainer(둘째 제논, the second Zeno)
the turn of the second century BC	스토아가 **100년**이 된 시점 · 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로 가르침이 전해짐 · 도발 · 회의론자 · 다른 학파의 공격을 견딤
history is cyclical	스토아의 핵심 신념 — 같은 일이 되풀이됨 / 우리는 특별하지 않음 / 태초부터 상연된 연극의 **교체 가능한 조각 · 배역**(interchangeable pieces, role players)
Chrysippus	학파를 성공적으로 **통합**(consolidation) · 후계자 선택권은 그의 것 · 가문은 **타르소스** 출신 → 타르소스 동향인들의 관심을 끎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Dioscurides	타르소스 출신 제자 · 크리시포스가 **최소 여섯 저작, 21권**을 헌정 · 유력 후계자(presumptive heir) · 너무 늙었거나 병약했거나 죽었을 것 · 둘째 제논의 **아버지**
Eusebius	**기독교** 저술가 · 둘째 제논이 윤회(reincarnation) 사상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전함
conflagration(우주 대화재)	우주의 실체가 불로(마치 씨앗으로 변하듯) 변했다가 되돌아와 이전과 같은 조직을 완성한다는 교리 · 첫 지도자들 **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가 받아들임 · 둘째 제논은 **의심**(doubted)
Aristo	비교 대상 — 둘째 제논은 "또 한 명의 아리스토"가 **아님**(3장) · 혁명가 · 교란자가 아니었고 열렬한 수호자조차 아니었음
maintainer / administrator	저자가 본 둘째 제논 — 상황을 가라앉히고 자리 잡게 할 만큼 "딱 적당히 원만한(just agreeable enough)" 사람 · 꾸준한 자세 · 공평한 손 · **차분한 존재감(calming presence)**
courage	싸움터로 돌진(rushing into the fray)만이 아니라 **인내**와 **내면 성찰**도 용기 ·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기 · 무엇이든 의무를 다하라
minor cavils	교리에 대한 사소한 이견 · 어떤 곳에서는 **클레안테스** 편, 다른 곳에서는 **크리시포스** 편 · 자아(ego)가 없었던 듯
Against Hieronymus of Rhodes	둘째 제논이 펴낸 책 — 갈등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문을 두드리면 집에 있었다"는 근거 · 각광 · 수백 권의 책 · 큰 강연은 필요로 하지 않음
a boat that floated	수십 년째 탄탄히 자리 잡은 스토아 · 그리스 전역에 **수천 명**의 실천가 · 첫 제논 = 새 영토 개척, 크리시포스 = 주먹을 날리고 막음, 둘째 제논 = **안정시키고 이어 가기**
Greece / Rome	그리스 **쇠퇴**(decline) · 로마 **부상**(rise) · 스토아는 **민주주의의 요람**을 떠나 성장하는 강국의 필요에 응함 · 시점이 더없이 중요
Diogenes of Babylon	타르소스의 제논의 **후계자** · 크리시포스의 또 다른 제자 · 이 전환 = 로마 권력의 부상 → 스토아의 **황금기**(공화정과 철학이 만나 융합 → 공화정이 제국으로)
transitional figure	타르소스의 제논은 대부분 잊힘 · 기껏해야 '전환기 인물' · 스토아라면 신경 쓸 수 없는 일 · 중요한 것 = **필요한 때 제 몫을 다함**(did his job when it needed to be done)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Zeno the Maintainer」 (원서 PDF 47~48쪽) · 4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5-1 백 년 된 학파, 또 한 명의 제논 47쪽 ¶1~¶4

원문 위치 원서 47쪽 ¶1~¶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was a hundred years old	be + 기간 + old(학파의 나이)
▲	¶1 둘째 문장	had passed to Cleanthes and then Chrysippus	과거완료(대과거)
▲	¶1 셋째 문장	had survived the provocations and doubters and attacks	타동사 survive + 명사 셋 병렬
★	¶2	But now what? Who would be next?	순서 배열의 '물음' 자리
▲	¶3 첫 문장	the idea that history is cyclical	동격의 that절
●	¶3 첫 문장	cyclical	반전 후보 → linear
▲	¶3 둘째 문장	That the same thing happens again	앞 문장 the idea에 이어지는 동격절(단독 문장)
●	¶3 셋째 문장	not so special	반전 후보 → unique
◆	¶3 마지막 문장	interchangeable pieces, role players	밑줄 의미: 누구로든 대체되는 배역
▲	¶3 마지막 문장	a play that has been playing since	현재완료진행 + since
▲	¶4 첫 문장	Very little makes this clearer than	부정 주어 + 비교급 = 최상급 / make + O + 형용사
★	¶4 첫 문장	starting us back at the beginning	빈칸 후보(순환의 실례)
▲	¶4 마지막 문장	For he too was named Zeno	접속사 for + too + name의 수동
◆	¶4 마지막 문장	he	지칭: 다음 지도자(타르소스의 제논)

내용

기원전 2세기로 넘어가던 무렵 스토아 철학은 백 년이 되었다. 제논의 가르침은 클레안테스에게, 다시 크리시포스에게 전해졌고, 학파는 도발과 회의론자와 다른 학파의 공격을 견뎌 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은 누구인가. 저자는 여기서 스토아의 핵심 신념 하나를 꺼낸다. 역사는 순환한다는 것, 같은 일이 거듭거듭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스토아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교체 가능한 조각들이며, 태초부터 상연되어 온 연극에서 배역을 맡은 사람들일 뿐이다. 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사실이 있다. 새 세기를 여는 스토아의 다음 지도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 역시 이름이 제논이었기 때문이다.

어법

- **At the turn of the second century BC, Stoicism was a hundred years old** : at the turn of the century =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be + 기간 + old는 사람뿐 아니라 제도 · 학파의 나이에도 쓴다. a hundred = one hundred.
- **Zeno's teachings had passed to Cleanthes and then Chrysippus** : 과거완료(had passed) = 기준 시점(기원전 2세기 초) 이전에 이미 끝난 일. pass to = ~에게 넘어가다(자동사).
- **They had survived the provocations and doubters and attacks from other schools** : survive는 타동사(survive + 목적어, 전치사 없음). 변형 → survived from은 오답. 목적어 셋을 and로 이은 병렬.
- **One of the central beliefs of Stoicism is the idea that history is cyclical** : one of + 복수 명사 + 단수 동사(is). the idea that ~ = 동격의 that절(뒤가 완전한 문장). 변형 → the idea which는 오답.
- **That the same thing happens again and again and again.** : 앞 문장의 the idea를 받는 동격 that절만 따로 떼어 쓴 문장(수사적 강조). 주절이 없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다.
- **role players in a play that has been playing since the beginning of time** : 주격 관계대명사 that + 현재완료진행(has been playing) + since =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형 → is playing since는 오답.
- **Very little makes this clearer than the fact that the next leader ~ would in a way be starting us back at the beginning** : 부정 주어(very little) + 비교급 = 최상급의 뜻(이보다 분명한 것은 거의 없다). make + 목적어 + 형용사 보어(clearer) — 부사 clearly는 오답. the fact that = 동격.
- **For he too was named Zeno.** : 문장 앞의 for = 왜냐하면(접속사). too = ~도 역시(주어 바로 뒤). name A B의 수동(was named Zeno).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urn (n.)	전환점, 바뀌는 시기	change, shift	—
pass to	~에게 넘어가다, 전해지다	be handed down to	—
survive (v.t.)	~을 견디고 살아남다	withstand, endure	succumb to
provocation	도발	challenge, incitement	appeasement
doubter	회의론자	skeptic	believer
central	핵심적인	core, key	peripheral
cyclical	순환하는	recurring, repeating	linear
interchangeable	교체 가능한	replaceable	unique
role player	배역을 맡은 사람(주역이 아닌)	cast member	star
since the beginning of time	태초부터	from the very start	—
in a way	어떤 의미에서는	in a sense	—
back at the beginning	다시 처음으로	at square one	at the end

내용 일치 기원전 2세기 초 = 스토아 100년 · 계승 순서 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 · 견뎌 낸 것 = 도발 · 회의론자 · 다른 학파의 공격 · 다음 지도자의 이름 = 제논. **지칭** ¶1 They = 스토아의 가르침(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로 이어진

학파) / ¶3 they = the Stoics / ¶4 he = 다음 지도자(타르소스의 제논). **밑줄 의미** interchangeable pieces = 누구로든 대체될 수 있는 배역, 특별하지 않음.

> **한 줄 요약** 백 년 된 스토아의 다음 지도자 역시 이름이 제논이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순환한다는 스토아의 신념을 가장 분명히 보여 준다.

5-2 디오스쿠리데스의 아들, 대화재를 의심하다 47쪽 ¶5~¶6 + 47쪽 인용

원문 위치 원서 47쪽 ¶5~¶6 + 47쪽 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 첫 문장	the choice of who would take up the mantle … was his to make	전치사 of + 의문사절 / 소유대명사 + to부정사
◆	¶5 첫 문장	take up the mantle	밑줄 의미: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다
▲	¶5 둘째 문장	As … had originated …, he must have drawn	이유의 as + 대과거 + must have p.p.
▲	¶5 셋째 문장	about whom little is known except that	전치사 + 관계대명사 / except that절
▲	¶5 셋째 문장	One of these Tarsian students, Dioscurides, …, was	긴 삽입 뒤 단수 동사
●	¶5 셋째 문장	presumptive	반전 후보 → unlikely
▲	¶5 마지막 문장	was likely too old or infirm	부사 likely(아마) + too + 형용사
▲	¶6 첫 문장	He did, however, have a son	강조의 do
◆	¶6 첫 문장	He / that son	지칭: Dioscurides / Zeno of Tarsus
◆	¶6 둘째 문장	didn't put too much stock in	밑줄 의미: 크게 믿지 않았다
▲	47쪽 인용 첫 문장	It is held by … that	가주어 it + 수동 + that절
▲	47쪽 인용 둘째 문장	the doctrine which was accepted by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 수동
●	47쪽 인용 둘째 문장	accepted	반전 후보 → rejected
▲	47쪽 인용 셋째 문장	is said to have doubted	be said to have p.p.(시제 차이)
★	47쪽 인용 셋째 문장	the conflagration of the universe	빈칸 · 내용 일치 후보

내용

크리시포스가 학파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뒤, 누가 그의 뒤를 이어 망토를 물려받을지는 그가 정할 일이었다. 크리시포스의 가문은 타르소스에서 나왔고 그가 그토록 명성을 얻었으니, 많은 타르소스 동향인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그 타르소스 출신 제자 가운데 디오스쿠리데스가 유력한 후계자였다. 그에 관해 알려진 것은 크리시포스가

그에게 스물한 권에 이르는 최소 여섯 편의 저작을 헌정했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디오스쿠리데스는 아마 너무 늙었거나 병약했거나, 어쩌면 죽었을 것이다. 다만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타르소스의 제논이다. 기독교 저술가 에우세비오스는 이 둘째 제논이 윤회 사상을 크게 믿지 않았다고 전한다. 우주의 실체가 불로, 마치 씨앗으로 변하듯 변했다가 되돌아와 이전과 같은 조직을 완성한다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견해이고, 그것은 학파의 첫 지도자들인 제논과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가 받아들인 교리였다. 그런데 크리시포스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제논은 우주의 대화재를 의심했다고 한다.

어법

- **the choice of who would take up the mantle after him was his to make** :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who ~ him). 주어는 the choice(단수) → was. his to make = 그가 내릴(소유대명사 + to부정사, 권한). 변형 → were는 오답.
- **As Chrysippus's family had originated in Tarsus and he had risen to such acclaim, he must have drawn the interest of many fellow Tarsians** : as = ~이므로(이유). had originated · had risen = 대과거. must have p.p. = ~했음이 틀림없다(과거의 강한 추측). 변형 → must draw는 오답.
- **One of these Tarsian students, Dioscurides, about whom little is known except that Chrysippus had dedicated at least six works to him that spanned twenty-one volumes, was the presumptive heir** : 주어 One + 동격(Dioscurides) + 전치사 + 관계대명사(about whom) 삽입 → 본동사 was. except that + 절 = ~라는 것 외에는. that spanned ~ 는 떨어져 있는 works를 수식. 변형 → about who는 오답.
- **But Dioscurides was likely too old or infirm, or perhaps he died** : likely = 부사(아마, probably). too + 형용사 = 지나치게 ~해서(자리를 맡지 못함).
- **He did, however, have a son, and that son was Zeno of Tarsus** : 강조의 do(did have = 분명히 있었다). however는 삽입. 변형 → did had는 오답(do 뒤는 원형).
- **It is held by the Stoic philosophers that the universal substance changes into fire, as into a seed** : 가주어 it + 수동태(is held) + 진주어 that절 = 스토아 철학자들은 ~라고 본다. change into = ~로 변하다. as into a seed = 씨앗으로 변하듯.
- **the doctrine which was accepted by the first and oldest leaders of the sect, Zeno, and Cleanthes, and Chrysippus** :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 수동. 콤마 뒤 세 이름 = leaders의 동격.
- **the Zeno who was the disciple and successor of Chrysippus in the School is said to have doubted about the conflagration of the universe** : the + 고유명사 + 관계절 = 여러 제논 중 '그' 제논. is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전해지는 시점보다 앞선 일 → 완료부정사). 변형 → is said to doubt는 시제가 맞지 않아 오답. 원문은 doubted about이지만 표준 어법은 doubt + 목적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solidation	통합, 공고화	unification	fragmentation
take up the mantle	지위 · 책임을 물려받다	succeed, inherit	hand over
originate in	~에서 비롯되다	come from	—
acclaim	명성, 찬사	praise, renown	criticism
fellow (a.)	같은 고장 · 처지의	—	—
dedicate A to B	A를 B에게 헌정하다	devote	—
span (v.)	(범위가) ~에 걸치다	cover, extend over	—
presumptive	유력한, 추정되는	likely, expected	unlikel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firm	병약한, 노쇠한	frail, weak	robust
put stock in	~을 믿다, 중시하다	trust, believe in	dismiss
reincarnation	윤회, 환생	rebirth	—
substance	실체, 물질	matter, essence	—
doctrine	교리	teaching, dogma	—
disciple	제자	student, follower	master
conflagration	대화재	great fire, blaze	—

내용 일치 후계 선택권 = 크리시포스 · 크리시포스 가문의 출신 = 타르소스 · 디오스쿠리데스 = 최소 여섯 저작 · 21권 헌정 · 에우세비오스 = 기독교 저술가 · 대화재 교리를 받아들인 셋 = 제논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 의심한 사람 = 둘째 제논. **지칭** ¶5 after him = Chrysippus, to him = Dioscurides / ¶6 He = Dioscurides, that son = Zeno of Tarsus / 인용의 the Zeno who ~ = Zeno of Tarsus(첫 제논이 아님).

> **한 줄 요약** 유력 후계자 디오스쿠리데스 대신 그의 아들 타르소스의 제논이 뒤를 이었고, 그는 첫 지도자들이 받아들인 우주 대화재 교리를 의심했다고 전해진다.

5-3 혁명가도 수호자도 아닌, 관리자 47쪽 ¶7 ~ 48쪽 ¶1

원문 위치 원서 47쪽 ¶7 ~ 48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 첫 문장	too on the nose	밑줄 의미: 너무 뻔하고 노골적인
▲	¶7 둘째 문장	should not draw from this doubt ... that	draw (결론) from A + that절
◆	¶7 둘째 문장	another Aristo	밑줄 의미: 교리를 뒤흔드는 반골(3장)
▲	¶7 넷째 문장	not even an ardent defender	not even = ~조차 아닌
●	¶7 넷째 문장	ardent	반전 후보 → lukewarm
▲	¶7 다섯째 문장	may have been exactly what the philosophy needed	may have p.p. + 관계대명사 what
★	¶7 다섯째 문장	a maintainer, an administrator	빈칸 1순위
▲	¶7 다섯째 문장	just agreeable enough to calm things down	형용사 + enough + to V
●	¶7 다섯째 문장	agreeable	반전 후보 → quarrelsome
▲	¶7 여섯째 문장(48쪽 첫 줄로 이어짐)	calls for a fighter, then ... calls for someone with	call for + 대구 / with + 명사 셋
★	48쪽 첫 줄	a calming presence	빈칸 · 서답형 단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8쪽 첫 줄	humbler	반전 후보 → grander
▲	¶1 첫 문장	isn't always rushing into the fray	부분 부정 not always + 동명사 보어
◆	¶1 첫 문장	rushing into the fray	밑줄 의미: 싸움에 뛰어드는 것
★	¶1 넷째 문장	matching 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	요지 · 요약 1순위
▲	¶1 넷째 문장	it was a matter of matching	a matter of + 동명사
▲	¶1 마지막 문장	whatever it is	복합관계대명사(양보)

내용

어쩌면 그 교리가 그에게는 너무 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의심이나 이견에서 그가 또 한 명의 아리스토였다는 결론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 그는 십중팔구 혁명가도 교란자도 아니었다. 열렬한 수호자조차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점에 철학이 꼭 필요로 하던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관리자, 행정가, 상황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잡게 할 만큼 딱 적당히 원만한 사람 말이다. 역사는, 삶이 그렇듯, 때로는 싸움꾼을 부르고 때로는 꾸준한 자세와 공평한 손과 차분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을 부른다. 어떤 순간은 별을 필요로 하고, 어떤 순간은 더 소박한 무엇을 필요로 한다. 용기가 언제나 싸움터로 돌진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용기는 인내이고, 때로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스토아는 우리 안에 이 능력들이 다 있다고 믿었으며, 관건은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법

- **Perhaps it was too on the nose for him.** : on the nose = 지나치게 노골적인, 뻔한(형용사구). too + 형용사구 + for + 사람. it = 대화재(윤회) 교리.
- **But we should not draw from this doubt or disagreement that he was another Aristo.** : draw (a conclusion) from A that절 — that절이 draw의 목적어(결론의 내용)이고 from 구가 그 앞에 끼어든 어순. another + 고유명사 = 또 한 명의 ~같은 사람.
- **He was not even an ardent defender.** : not even = ~조차 아니다(앞 문장의 부정을 한 단계 더 밀어 냄). 변형 → even not은 오답.
- **But he may have been exactly what the philosophy needed at that time—a maintainer, an administrator, just agreeable enough to calm things down and then become established** : may have p.p. = ~였을지도 모른다.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needed의 목적어 자리가 빔). 형용사 + enough + to V(어순 주의) / to calm ~ and (to) become 병렬. 변형 → enough agreeable은 오답.
- **Sometimes history—just like life—calls for a fighter, then sometimes it calls for someone with a steady bearing, an even hand, and a calming presence.** : call for = ~을 필요로 하다. 주어 history(단수) → calls. with + 명사 셋의 병렬(특징). 변형 → call for는 오답.
- **Courage isn't always rushing into the fray. Sometimes it's endurance.** : not always = 부분 부정(언제나 ~인 것은 아니다). rushing = 동명사 보어(돌진하는 것). 변형 → never로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
- **We have each of these abilities inside us, the Stoics believed, and it was a matter of matching 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 : the Stoics believed = 삽입절. a matter of + 동명사(~의 문제). match A to B = A를 B에 맞추다. 변형 → a matter of to match는 오답.
- **We must do our duty, whatever it is.** : whatever = 복합관계대명사의 양보절(= no matter what it is). 변형 → however it is는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n the nose	너무 뻔한, 노골적인	too obvious	subtle
draw (a conclusion) from	~에서 결론을 끌어내다	infer, conclude	—
revolutionary (n.)	혁명가	radical	conservative
disruptor	교란자, 판을 뒤엎는 사람	troublemaker	stabilizer
ardent	열렬한	passionate, fervent	lukewarm
maintainer	유지하는 사람, 관리자	keeper, caretaker	destroyer
agreeable	원만한, 붙임성 있는	pleasant, easygoing	quarrelsome
established	자리 잡은, 확립된	settled, secure	shaky
call for	~을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require, demand	—
bearing	자세, 태도	manner, demeanor	—
even hand	공평한 손, 치우치지 않는 처리	impartiality	bias
humble	소박한, 겸손한	modest	grand
fray	싸움, 싸움터	fight, battle	peace
endurance	인내, 지구력	perseverance	surrender

내용 일치 둘째 제논이 '아니었던' 것 = 또 한 명의 아리스토 · 혁명가 · 교란자 · 열렬한 수호자 / '이었던' 것 = 관리자 · 행정가 · 차분한 존재 · 용기의 세 모습 = 돌진 · 인내 · 내면 성찰. **밑줄 의미** another Aristo = 교리를 뒤흔드는 반골(3장) / rushing into the fray = 싸움에 뛰어드는 것 / something humbler = 별이 아닌 소박한 사람.

> **한 줄 요약** 대화재를 의심했어도 그는 또 한 명의 아리스토가 아니라 때가 요구한 관리자였고,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는 것이 스토아의 용기다.

5-4 사소한 이견, 떠 있는 배, 잊힌 전환기 인물 48쪽 ¶2~¶7

원문 위치 원서 48쪽 ¶2~¶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둘째 문장	minor cavils	빈칸 · 어휘 후보(minor ↔ major)
▲	¶2 넷째 문장	does not seem to have had an ego	seem to have p.p.(시제 차이)
◆	¶2 다섯째 문장	when trouble knocked on his door it found him home	밑줄 의미: 싸움을 찾지 않되 피하지도 않음
◆	¶2 여섯째 문장	the limelight	밑줄 의미: 각광, 세간의 주목
▲	¶2 마지막 문장	boring enough—and wrote just little enough—to smooth over … and pass … on	enough to V + to부정사 병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마지막 문장	boring	반전 후보 → flashy
◆	¶3 둘째 문장	threw punches and blocked some too	밑줄 의미: 공격하고 방어함(4장)
★	¶3 다섯째 문장	a boat that floated	밑줄 · 빈칸 후보
▲	¶3 다섯째 문장	practitioners spread across Greece	과거분사 후치 수식
▲	¶3 마지막 문장	What … needed to do was stabilize and carry on	what절 주어 + 원형부정사 보어
▲	¶4	could not have been more critical	부정 + 비교급 = 최상급
●	¶5 첫·둘째 문장	decline / rise	반전 후보(서로 바꿔치기)
◆	¶5 셋째 문장	the cradle of democracy	밑줄 의미: 그리스(아테네)
▲	¶5 마지막 문장	was succeeded by …, a transition that would be marked by	수동 + 동격 명사구 + 관계절
▲	¶7 첫 문장	That Zeno of Tarsus would be mostly forgotten … ?	that절(명사절)만 떼어 쓴 수사의문
◆	¶7 첫 문장	a transitional figure	밑줄 의미: 두 시대 사이를 잇기만 한 인물
★	¶7 마지막 문장	did his job when it needed to be done	요지 · 요약 1순위

내용

둘째 제논도 그러했다. 그가 교리를 두고 트집을 잡았을 때 그것은 사소한 이견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클레안테스 편을, 다른 곳에서는 크리시포스 편을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아가 없었던 것 같다. 그는 갈등을 즐기지 않았지만, 문제가 그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가 집에 있었으리라고는 짐작할 수 있다. 『로도스의 히에로니모스 반박』이라는 책을 펴냈기 때문이다. 그는 각광이 필요 없었고, 수백 권의 책을 쓰거나 큰 강연을 열 필요도 없었다. 타르소스의 제논은 그 시대의 파문과 갈등을 가라앉히고 철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만큼 충분히 지루하고, 딱 그만큼 적게 쓴 사람이었다. 첫 제논은 새 영토를 개척했다. 크리시포스는 주먹을 날렸고 몇 번은 막기도 했다. 둘째 제논은 그 어느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스토아는 이미 수십 년째 탄탄히 자리 잡은, 그리스 전역에 수천 명의 실천가를 둔 '떠 있는 배'였다. 그가 할 일은 안정시키고 이어 가는 것이었다. 시점은 더없이 중요했다. 그리스는 기울고 로마는 떠오르고 있었다. 스토아는 민주주의의 요람을 떠나 성장하는 강국의 필요에 응하려 하고 있었다. 타르소스의 제논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크리시포스의 또 다른 제자인 바빌론의 디오게네스가 뒤를 이었고, 이 전환은 로마 권력의 부상과 함께 공화정과 철학이 만나 융합하는 스토아의 황금기를 열었다. 그리고 공화정은 제국이 된다. 타르소스의 제논이 대부분 잊히고 기껏해야 '전환기 인물'로 기억된다는 것? 스토아라면 신경 쓸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는 사실이다.

어법

- **But he does not seem to have had an ego.** : seem to have p.p. = 주절(현재 does not seem)보다 앞선 일(과거에 자아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변형 → seem having은 오답(seem + to부정사). seem to have an ego로 바꾸면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이라는 뜻이 사라진다.

- **He didn't thrive on conflict, though we can assume that when trouble knocked on his door it found him home** : thrive on = ~을 즐기다. assume that + (when절 + 주절). it = trouble, him = 둘째 제논. find + O + home = ~가 집에 있음을 알다.
- **Zeno of Tarsus was a man who was boring enough—and wrote just little enough—to smooth over the ripples and conflicts of his day and pass the philosophy on to the next generation** : 형용사 · 부사 + enough + to V. to부정사 둘(smooth over / pass on)의 병렬. pass A on to B = A를 B에게 넘겨주다. 변형 → enough boring은 오답.
- **What the second Zeno needed to do was stabilize and carry on.** : what절 주어 + be + 원형부정사 보어(주어에 do가 있을 때 to 생략 가능 = to stabilize). 두 동사(stabilize / carry on)의 병렬.
- **The timing could not have been more critical.** : could not have been + 비교급 = 더 ~할 수 없었다 → 최고로 ~했다(최상급 의미). 변형 → the most critical로 바꾸면 '가장 중요했을 리 없다'로 뜻이 반대가 된다.
- **he was succeeded by Diogenes of Babylon, another student of Chrysippus, a transition that would be marked by the rise of Roman power** : succeed의 수동(~가 뒤를 이었다). another student ~ = Diogenes의 동격, a transition ~ = 앞 절 전체의 동격 + 관계대명사 that. 변형 → succeeded Diogenes(능동)는 뜻이 반대.
- **That Zeno of Tarsus would be mostly forgotten—remembered ~ as, at best, a transitional figure?** : that절(명사절)만 떼어 물음표를 붙인 수사적 문장. remember A as B의 수동. at best = 기껏해야.
- **What mattered is that he did his job when it needed to be done.** : what절 주어 + that절 보어. it = his job, need to be p.p. = ~되어야 한다(수동). 변형 → needed to do는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quibble with	~에 트집을 잡다	nitpick	accept
thrive on	~을 즐기다, ~으로 번성하다	flourish on	shrink from
limelight	각광, 세간의 주목	spotlight	obscurity
smooth over	(문제를) 가라앉히다, 무마하다	settle, ease	stir up
stabilize	안정시키다	steady	destabilize
decline (n.)	쇠퇴	fall, decay	rise
cradle	요람, 발상지	birthplace	grave
succeed (v.t.)	~의 뒤를 잇다	follow, replace	precede
usher in	(시대를) 열다, 안내하다	bring in, herald	end
transitional	과도기의, 전환기의	intermediate	permanent

내용 일치 편을 든 두 사람 = 클레안테스 · 크리시포스 · 펴낸 책 = 『로도스의 히에로니모스 반박』 · 실천가 수 = 수천 명 · 후계자 = 바빌론의 디오게네스(크리시포스의 또 다른 제자) · 사망 시점 = 미상. **밑줄 의미** a boat that floated = 가라앉을 걱정이 없는 학파 / the cradle of democracy = 그리스 / a transitional figure = 두 시대를 잇기만 하고 잊히는 인물. **지칭** ¶2 it = trouble, him = 둘째 제논 / ¶3 It = Stoicism / ¶6 It = 그 전환.

> **한 줄 요약** 자아 없이 사소한 이견만 남기고 적게 쓴 둘째 제논은 떠 있는 배를 안정시켜 로마 시대로 넘겨주었고, 잊혔어도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5 ZENO II]

범위	Zeno the Maintainer (원서 PDF 46~48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e tend to picture courage as a soldier rushing into battle. The Stoics saw it differently. Courage, they said, is not always charging into the fray; sometimes it is endurance, and sometimes it is the quiet work of looking inward. Each of us carries all of these capacities, and the real task is to match 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 A crisis may call for a fighter; a calmer season may call for someone with a steady bearing and an even hand. Neither role is superior to the other. What we owe the world is not a dramatic performance but our duty, whatever form it happens to take.

① True courage is shown only on the battlefield.
② We should choose the virtue that fits the demands of the moment and do our duty.
③ Endurance is a higher virtue than boldness.
④ A fighter is always more valuable than an administrator.
⑤ Looking inward is a way of avoiding one's responsibilitie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fter Chrysippus had unified the Stoic school, the choice of his successor was his alone. Since his family came from Tarsus and his fame had spread widely, many Tarsians had gathered around him. Among them was Dioscurides, a student so valued that Chrysippus dedicated at least six works, running to twenty-one volumes, to him. Everyone assumed Dioscurides would be next. Yet he never took the position—he was probably too old or too ill, or perhaps he had already died. He did, however, leave a son, Zeno of Tarsus, and it was this son who took up the mantle. The school's next leader thus bore the same name as its founder.

① From Father to Son: How Stoicism Found Its Next Zeno
② Chrysippus's Twenty-One Volumes on Logic
③ Why Tarsus Became the Capital of Philosophy
④ Dioscurides: The Leader Who Reformed the Stoa
⑤ The Dangers of Choosing a Successor Too Early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istory remembers founders and fighters. It rarely remembers the people who simply kept things running. Zeno of Tarsus is a case in point. He wrote little, avoided the limelight, and needed no big lectures. When he is remembered at all, it is as a transitional figure between the great Chrysippus and the Roman age of Stoicism. Being forgotten, however, is not something a Stoic can care about. Reputation after death is not ours to decide; the work in front of us is. By that standard, the second Zeno succeeded completely: he did his job at the moment it needed to be done.

① Great leaders should write many books so that history remembers them.
② What matters is doing one's job when it is needed, not being remembered for it.
③ Transitional figures deserve more fame than founders.
④ Stoicism declined because its later leaders avoided public attention.
⑤ History is unfair, so we should fight to secure our reputation.

4. 밑줄 친 a boat that floate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Each leader of the early Stoa faced a different task. The first Zeno had to carve out new territory, building a school where none had existed. Chrysippus had to throw punches and block a few, defending the young school against rivals and critics. By the time the second Zeno took over, none of that was necessary. Stoicism had been firmly established for decades, with thousands of practitioners spread across Greece. It was, in short, a boat that floated. The second Zeno did not have to invent anything or win any battles. His assignment was less glamorous but no less necessary: to stabilize what he had inherited and carry it safely on to the next generation.

① a school that was about to sink under criticism
② a well-established school in no danger of sinking
③ a philosophy that had spread by sea to foreign lands
④ a movement that depended entirely on its leader's genius
⑤ a doctrine drifting aimlessly without direction

5. 밑줄 친 when trouble knocked on his door, it found him hom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Zeno of Tarsus did not go looking for arguments. When he disagreed with earlier Stoics, his objections were minor cavils; on some points he sided with Cleanthes, on others with Chrysippus, and he seems to have had no ego invested in either. He did not thrive on conflict the way Chrysippus had. Still, it would be a mistake to picture him as a man who would surrender a position simply to keep the peace. One of his books, a reply to Hieronymus of Rhodes, survives at least in name, and its existence tells us that when trouble knocked on his door, it found him home. He had no appetite for the limelight, yet he was present whenever the school needed defending.

① He preferred to stay at home rather than teach in public.
② He was ready to respond when a challenge actually came to him.
③ He invited rivals to his house to debate them.
④ He was often caught unprepared by sudden attacks.
⑤ He avoided every conflict by refusing to answer critic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Chrysippus's family had come from Tarsus, and as his fame grew, many young Tarsians came to study with him. One of them, Dioscurides, is remembered for a single fact: ① he received the dedication of at least six of the master's works, filling twenty-one volumes. Naturally ② he was expected to lead the school next. But ③ he was probably too old or too frail by then, or perhaps already dead. ④ He had a son, however, and that son was Zeno of Tarsus. According to the Christian writer Eusebius, ⑤ he doubted the old Stoic teaching that the universe periodically dissolves into fire and then is reborn exactly as befor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Zeno of Tarsus became head of the Stoic school around the turn of the second century BC, when the school was already a hundred years old. We do not know when he was born, and his death is placed only roughly between 190 and 180 BC. He was the son of Dioscurides, a Tarsian student of Chrysippus. Zeno felt no need to produce hundreds of volumes or to draw crowds to grand lectures; among his few known works is a reply to Hieronymus of Rhodes. The Christian writer Eusebius records that he doubted the Stoic doctrine of the universal conflagration. His successor was Diogenes of Babylon, another student of Chrysippus.

① 타르소스의 제논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스토아학파는 창립 50년째였다.
② 그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다.
③ 그는 크리시포스의 제자인 디오스쿠리데스의 아들이었다.
④ 그는 수백 권의 책을 쓰고 큰 강연을 열었다.
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로도스의 히에로니모스였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Because Zeno of Tarsus questioned the doctrine of the universal conflagration, one might imagine him as another Aristo, a rebel determined to overturn the teachings of his school. The evidence points the other way. His disagreements were minor; sometimes he agreed with Cleanthes, sometimes with Chrysippus, and he showed little sign of ego. He was neither a revolutionary nor a passionate defender of orthodoxy. Instead he was a maintainer—an administrator agreeable enough to calm the disputes of his day and let the school settle. He never sought the limelight, felt no need for big lectures, and wrote only a little. In the author's view, this was exactly what Stoicism needed at that moment.

① 타르소스의 제논은 우주 대화재 교리에 의문을 품었다.
② 그는 클레안테스나 크리시포스와 의견이 갈릴 때 사소한 이견에 그쳤다.
③ 그는 정통 교리를 열렬히 수호한 인물이었다.
④ 그는 각광을 구하지 않았고 큰 강연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⑤ 필자는 그가 당시 스토아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고 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When the second century BC began, the Stoic school was already a hundred years old. Its teachings ① had passed from Zeno to Cleanthes and then to Chrysippus, and the school had outlasted every attack from rival schools. Among its central beliefs was the idea ② that history moves in cycles: the same events return again and again. We are not so special, the Stoics would say; we are interchangeable pieces, actors in a play ③ that has been running since the beginning of time. Nothing makes this ④ more clearly than the fact that the school's next leader was also named Zeno. The choice of who would take up the mantle after Chrysippus ⑤ was his alone to mak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Zeno of Tarsus does not seem (A) [to have / having] had much of an ego. He did not thrive on conflict, yet when trouble came to his door, it found him home. He was boring enough—and wrote just little enough—(B) [smoothing / to smooth] over the ripples of his day and pass the philosophy on to the next generation. The timing could not have been more critical, for Greece was declining and Rome was rising. What the school needed was not a star but someone (C) [whose / who] steady hand could carry it into a new age.

	(A)	(B)	(C)
①	having	to smooth	whose
②	to have	smoothing	whose
③	to have	to smooth	who
④	to have	to smooth	whose
⑤	having	smoothing	who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One of the central beliefs of Stoicism is that history is ① cyclical: the same things happen again and again. We are not so special, the Stoics would say; we are ② irreplaceable pieces, role players in a drama that has been running since the beginning of time. Few facts make this clearer than the succession after Chrysippus. The ③ presumptive heir, Dioscurides, a Tarsian student to whom Chrysippus had dedicated twenty-one volumes, never took the position; he was probably too old or infirm, or perhaps already dead. His son took over instead, and that son was also named Zeno—so the school's second century began by ④ returning to its beginning. The Stoics would have found nothing ⑤ surprising in this; it was simply the wheel turning once mor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Zeno of Tarsus is remembered, if at all, as a transitional figure: a name between Chrysippus, who had consolidated the school, and Diogenes of Babylon, under whom Stoicism would meet the rising power of Rome. He wrote little, his dates are uncertain, and no famous saying of his survives. Does that make his life a failure? A Stoic would reject the question. Being forgotten by later generations is _____; it lies outside our control. What lies inside our control is the task in front of us. By that measure the second Zeno succeeded: when the school needed a steady hand rather than a star, he supplied it, and he did his job when it needed to be done.

① something a Stoic cannot afford to care about
② the worst fate a philosopher can suffer
③ a sign that one's ideas were mistaken
④ a problem that more books would have solved
⑤ proof that the school had lost its way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e timing could not have been more critical.

The first Zeno had carved out new territory, and Chrysippus had thrown punches to defend it. (①) By the time the second Zeno took over, Stoicism was a boat that floated, and his job was to stabilize it and carry it on. (②) For at that very moment Greece was in decline and Rome was ascending, and Stoicism was about to leave the cradle of democracy to serve the needs of a growing power. (③) His death date is unknown; the school then passed to Diogenes of Babylon, who had also studied under Chrysippus. (④) That transition would be marked by the rise of Roman power. (⑤) It also opened the golden age of Stoicism, in which Rome's Republic embraced the philosophy before turning into an empir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he Stoics did not believe that courage had only one face. ① Rushing into the fray is certainly one form of it, and the school had needed that form when Chrysippus fought off its critics. ② But courage can also be endurance, the patient refusal to give up, and it can be the quiet discipline of looking inward. ③ Chrysippus quoted so many lines from Euripides's Medea in one essay that people jokingly called it the Medea of Chrysippus. ④ Every person, the Stoics held, carries each of these abilities, and wisdom lies in matching the right virtue to the right moment. ⑤ For the second Zeno, that meant not a dramatic battle but the humbler work of keeping the school steady and doing his duty, whatever it happened to b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t the turn of the second century BC, Stoicism had been alive for a hundred years, and its followers wondered who would lead it next.

(A) Few facts illustrate this belief better than what happened next. The man who took over the school, opening its second century, was also named Zeno—as if the story were starting over from the beginning.

(B) This second Zeno came from Tarsus, Chrysippus's ancestral home, and he was the son of Dioscurides, the student who had been expected to inherit the position but who was probably too old, too ill, or already dead.

(C) The Stoics had a ready answer to such anxieties: history is cyclical. The same things happen again and again, and none of us is as special as we imagine; we are interchangeable pieces in a play that has been running since the beginning of time.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Zeno of Tarsus left almost no mark on history. He wrote little, needed no grand lectures, and his disagreements with earlier Stoics amounted to minor cavils. Even his dates are uncertain. At best he survives as a name between Chrysippus, who had consolidated the school, and Diogenes of Babylon, under whom the school would meet the rising power of Rome. Yet the author refuses to read this obscurity as failure. A school that had just survived a century of attacks did not need another fighter; it needed someone agreeable enough to calm things down and let the school settle. By being boring enough—and writing little enough—to smooth over the conflicts of his day, Zeno did precisely what the moment required of him.

→ Though the second Zeno is remembered at most as a (A) _____ figure, his (B) _____ style of leadership was, in the author's view, exactly what Stoicism needed in his time.

① transitional ..... unassuming
② transitional ..... combative
③ legendary ..... unassuming
④ heroic ..... combative
⑤ rebellious ..... cautiou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Zeno of Tarsus became the leader of the Stoic school when it was a hundred years old. He was the son of Dioscurides, a student of Chrysippus from Tarsus, to whom Chrysippus had dedicated works filling twenty-one volumes. According to the Christian writer Eusebius, the second Zeno doubted the doctrine of the universal conflagration. He was not another Aristo; his disagreements were minor cavils, and he published only a little, including a book against Hieronymus of Rhodes. He stabilized a school that already had thousands of practitioners across Greece, and he was succeeded by Diogenes of Babylon as Rome rose and Greece declined.

<QUIZ>

(1) How old was the Stoic school when Zeno of Tarsus became its leader?
Answer for (1): _____

(2) From which city did Zeno of Tarsus and his father come?
Answer for (2): _____

(3) Who was the father of Zeno of Tarsus?
Answer for (3): _____

(4) Which writer said the second Zeno doubted the conflagration?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second Zeno was another Aristo?
Answer for (5): _____

(6) Against which philosopher did Zeno of Tarsus write a book?
Answer for (6): _____

(7) Who succeeded Zeno of Tarsus as leader of the school?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Tarsus	N. Hieronymus of Rhodes
B. fifty years	O. two hundred years
C. a hundred years	P. Babylon
D. Chrysippus	Q. Cicero
E. True	R. Diogenes Laërtius
F. Plutarch	S. Rhodes
G. Diogenes of Babylon	T. the first Zeno
H. Athens	U. Soli
I. False	V. Carneades
J. Cleanthes	W. Seneca
K. Aristo	X. Epicurus
L. Dioscurides	Y. twenty-one years
M. Eusebius	Z. Arcesilau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기원전 2세기 초에 스토아 철학은 백 년이 되었다. (At the turn of / a hundred years old)

02 스토아의 핵심 신념 하나는 역사가 순환한다는 생각이다. (One of + 복수 명사 / 동격 that / cyclical)

03 우리는 태초부터 상연되어 온 연극의 교체 가능한 조각들이다. (interchangeable / that has been playing since)

04 그 역시 이름이 제논이었기 때문이다. (For + S V / too / be named)

05 누가 그의 뒤를 이어 망토를 물려받을지는 그가 정할 몫이었다. (the choice of who ~ / his to make)

06 그 제논은 우주의 대화재를 의심했다고 한다. (is said to have p.p. / conflagration)

07 그는 상황을 가라앉힐 만큼 딱 적당히 원만했다. (형용사 + enough + to V / calm things down)

08 용기가 언제나 싸움터로 돌진하는 것은 아니다. (not always(부분 부정) / rushing into the fray)

09 그것은 알맞은 덕을 알맞은 순간에 맞추는 문제였다. (a matter of -ing / match A to B)

10 그는 자아가 없었던 것 같다. (seem to have p.p. / ego)

11 시점은 더없이 중요했다. (could not have been more + 형용사)

12 중요한 것은 그가 필요한 때에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이다. (What mattered is that / need to be done)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둘째 제논의 출생 / 출신 / 사망 연도	
지도자가 된 시점 / 당시 학파의 나이 / 가르침의 계승 순서	
학파가 견뎌 낸 세 가지	
스토아의 핵심 신념(역사관) / 인간의 비유	
후계자를 고른 사람 / 그의 가문 출신지	
유력 후계자 / 헌정받은 저작 수와 권수 / 물러난 이유 / 둘째 제논과의 관계	
둘째 제논의 의심을 전한 사람 / 그의 신분 / 의심한 교리	
대화재 교리를 받아들인 첫 지도자 셋	
둘째 제논이 '아니었던' 것 / '이었던' 것	
차분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47쪽 ¶7 끝)	
용기의 세 모습	
둘째 제논이 편을 든 두 사람 / 펴낸 책	
첫 제논 · 크리시포스 · 둘째 제논이 한 일(비유)	
학파의 비유 / 실천가 수	
기울던 나라 / 떠오르던 나라 / 스토아가 떠난 곳의 별칭	

항목	답
둘째 제논의 후계자 / 그의 신분 / 그 전환이 연 시대	
둘째 제논이 역사에 남은 방식 / 저자의 결론	

4-3. 통합 사고 문제 — 4장과 5장을 잇는 자리

문제

4장에서 크리시포스가 어린 학파를 지키기 위해 '주먹을 날리고 막는' 싸움꾼의 역할을 맡은 일(41쪽 ¶2, 48쪽 ¶3)과, 5장에서 둘째 제논이 혁명가도 열렬한 수호자도 아닌 '관리자'로서 떠 있는 배를 안정시킨 일(47쪽 ¶7, 48쪽 ¶3)을 비교하여, 저자가 두 사람을 모두 옳았다고 보는 기준을 영어 한 구절(48쪽 ¶1의 표현)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4장 또는 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기준: The author judges both men by whether they matched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